

8월4일 화답송 - 연중 제 18주일

김은민 Cecillia 曲

시편 90(89),3-4.5-6.12-13.14와 17(© 1)

주 님, 당 신 은 대 대 로 저 희 안 식 처 가

되 셧 나 이 - - 다. Fine

1.인	간	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	시	며
2.당	신	이 그들을 쓸어 내	시	니,
3.저	희	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	소	서.
4.아	침	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	소	서.

당신은 말씀하시나	이	다.
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	같	고,
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	이	다.
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	이	다.

“사람들아, 돌아	가	라.”
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	니	다.
돌아오소서,	주	님,
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	소	서.

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
아침에 돌아나 푸르렀
언제까지리
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

같
다
이
소

고,
가,
까?
서.

한 토막 밤과도 같사
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
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
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

옵
나
푸
주

니
이
소
소

다.
다.
서.
서.

D.C.